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2월 16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5면

◆ 인터뷰-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

“불편·불만·건의 등은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자칭 ‘어사 박문수’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쌓아 왔던 노하우로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민원 현장을 찾아다니며 땀을 흘리고 있는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사진)이다.

요즈음은 송중동 롯데캐슬 건축현장 도로개설, 우이동 월벽교 등의 사안으로 여전히 분주한 박 위원장.

그는 매일 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행부 자료를 요청하는 등 많은 공부를 통해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강북구의회 제2대·제3대·제6대 의원에 이어 7대에 들어와 4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위원장에게 올미년을 맞아 7대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들어 보았다.

강북구 주민이 나의 최대 고객. ‘고객은 왕이다’라는 심정으로 올미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사 박문수’ 전화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강북구의 불편, 불만, 건의 등은 언제 어느 때고 전화를 해 달라고 한다.

박 위원장은 4선 의원으로 7대 의정활동기간 중 지난해 7월 10일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서 대표발의한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되어 무산되었을때의 심정을 아쉬움으로 꼽았지만 결국 3번째에 통과가 되기도 했다.

또 지역 주민의 대소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 그



는 지역 주민의 대소사 행사에 참여보다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한 열공의 자세는 계속 견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혼자 판단보다는 여러 의원이 함께 해결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편향된 민원해결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함이 제일의 목적이며, 송중동의 건축현장(롯데캐슬)의 도로개설 건이 시공사의

협조로, 완공 전 우선 도로개설공사 진행되고 있는 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특정인에게 혜택이 아닌 강북구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우이동 월벽교를 강북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북구의 불편, 불만, 건의 등은 24시간 내내 연락을 기다린다고...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의원의 입장이 아닌 위원회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위원들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남은 기간까지 지금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어 강북구청의 존재이유는 강북구주민이 있기에 강북구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위하여 강북구청이 있다는 일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남은 임기동안도 구의원, 운영위원장의 임무와 책무를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해 지역활동과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까지 남은 시간을 할애 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더 다가갈 자세로 강북구민들을 위한 민생정치를 약속했다.

◆인터뷰-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

“불편·불만·건의는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송중동 롯데캐슬 도로개설, 우이동 월벽교 등 사안 다뤄

▲강북구의회 제2대·제3대·제6대 의원에 이어 7대에 들어와 4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미년을 맞아 7대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가 있다면?

-강북구 주민이 나의 최대 고객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심정으로 올미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호는 ‘어서 박문수 전하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강북구의 불편, 불만, 건의 등은 언제 어느 때고 전해주세요.

▲4선 의원으로 7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의정활동기간 중 아쉬웠던 일이 있었다면?

-지난해 7월 10일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서 대표발의한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되어 무산 됐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매우 아쉬웠지만 결국 3번째에 통과가 됐습니다. 또 지역 주민의 대소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지난 선거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루었지만 당선시켜준 주민의 고견을 따라 지역 주민의 대소사 행사에 참여보다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한 열공의 자세는 계속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또 시원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혼자의 판단보다는 여러 의원이 함께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나누어 편향된 민원해결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함이 제일의 목적이며, 송중동의 건축현장(롯데캐슬)의 도로개설 건이 시공사의 협조로, 완공 전 우선 도로개설공사 진행되고 있는 건 등입니다.

▲올 한해 구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이며 현재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박문수 위원장

-언제 어느 때고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불편, 불만, 건의 등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북구청의 존재이유는 강북구주민이 계시기에 강북구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위하여 강북구청이 있다는 일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아닌 강북구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우이동 월벽교를 강북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각각 의원의 입장이 아닌 위원회 입장에서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는 위원들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남은 기간까지 지금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